

남성 신질환 소아의 임상양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학교실

황현희 · 최병호 · 박숙현 · 조민현 · 고철우

Clinical Study of Cystic Kidney Disease in Children

Hwang Hyun Hee, Choi Byung Ho, Park Sook Hyun, Cho Min Hyun and Ko Cheol Woo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목적 : 남성 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환아를 대상으로 질환 및 성별 분포, 발병 연령, 진단 과정, 가족력, 동반된 요로계 기형, 임상 경과를 조사하여 남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세 이하의 남성 신질환 환아 34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대상 환아 34례 중 다낭성 신이형성증이 23례 (68%)로 가장 많았고, 상염색체 열성 다낭성신이 4례 (11.5%), 단순 낭종이 4례 (11.5%),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신이 3례 (9%)이었다. 침범 위치는 오른쪽 9례 (26%), 왼쪽 17례 (50%), 양쪽 8례(24%)이었고, 남아 18례 (53%), 여아 16례(47%)이었으며, 추적관찰기간은 3개월에서 15년이었다. 진단 당시의 평균 연령은 17.3개월이었으며, 1세 미만이 27례 (79%), 2- 5세가 3례 (9%), 5- 10세가 3례 (9%), 10- 15세가 1례 (3%)이었다. 진단 과정으로 산전 초음파로 발견된 경우가 25례 (74%)로 가장 많았고, 복부 종괴가 있어 진단한 경우 3례 (9%), 복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에 대한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6례 (17%)이었다. 신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5례 (15%)이었다. 동반된 요로계 기형으로는 다낭성 신이형성증 23례 중 수신증 1례, 중복 요관 1례, 거대요관 1례, 수신증과 방광요관역류를 함께 동반한 경우 1례가 있었다. 다낭성 신이형성증 중 2례 (8.7%)에서 추적관찰 기간 중 낭종 감염으로 우측 신절제를 하였고, 1례의 고혈압이 있었으며, 요로감염이 3례 있었다. 상염색체 열성 다낭성의 경우 1례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12세에 신이식을 시행하였다.

결론 : 남성 신질환은 여러가지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 감염, 신부전, 고혈압 등의 합병증에 따른 예후도 다양하다. 따라서 각 질환 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관찰과 보다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남성 신질환
Cystic Kidney Disease